

시연(施連)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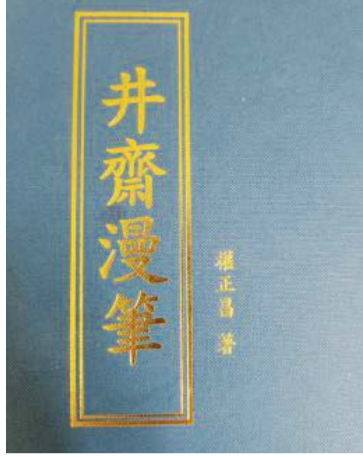
# 제례문화 최고 권위자는 권정창 위원장이다



글 권오신  
(安東權氏 佐尹公派會長, 칼럼니스트)



권정창 제례위원장



10월부터 가장 바쁘신 분이 권정창(權正昌, 佐尹公派, 36세) 대종회 제례위원장이시다. 우리나라 제례(祭禮)문화는 어렵다. 중국(中國)에서 건너온 의식이어서 한문(漢文)이 자유롭지 못하면 해석이 어렵다. 예학(禮學) 논쟁에서 볼 수 있듯이 종중(宗中)이나 학자(學者)들 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어 여간 해박하지 않고는 대중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안동은 반가(班家)가 모여 사는 곳이다. 안동권씨(安東權氏), 김씨(金氏), 장씨(張氏) 등 고려(高麗) 초기 사성(賜姓)이 된 삼성(三姓)을 비롯 하회류씨, 진성이씨, 의성김씨 등 반가(班家)의 집성촌이 형성된 고장이며 최근 세계문화(世界文化) 유산으로 등재된 도산서원(陶山書院)과 병산서원(屏山書院) 등 서원(書院)과 종택(宗宅) 제실(齋室) 등 성리학(性理學)과 유교(儒敎) 이론을 뒷받침할 조선(朝鮮)의 문화유적(文化遺蹟)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도포(道袍) 차림에 갓이나 유건(儒巾)으로 단장한 후손들이 사림(士林)의 정신문화(精神文化)를 지키는 곳이어서 더 유명하다. 또 가가예문이 독특한 반가(班家)의 도시 안동에서 전통 제례문화를 자유롭게 논하기란 쉽지 않다.

대종회에서 8년째 제례위원장으로 헌신(獻身)하시는 정재(井齋) 권정창(權正昌, 80)공은 현재 안동향교(安東鄕校) 부설 사회교육원과 병산서원(屏山書院)에서 제례문화 특강을, 향교(鄕校) 등 유림단체 주관 행사는 물론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 심사위원으로도 초청될 만큼 바쁘신 시기다.

분정에서부터 제향(祭享)까지 그의 손길이 가지 않는 곳이 없다. 특

히 시조(始祖) 묘소와 아시조(亞始祖)이신 낭중공(郞中公)단소의 춘추제향(春秋祭享)엔 분정에서부터 헌관(獻官)을 모시고 복잡한 제례 순서가 참출에 따라 막힘없이 진행(進行)되도록 헌장 지휘를 하신다.

춘추향은 시작에서 예필(禮畢)까지 40분간. 이 40분 동안 흥기(興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이다. 헌관(獻官)이나 제집사가 이 흥기(興記)를 모두 알아들을 수 없으니 제례위원장이 의식을 도와주어야만 제대로 풀린다.

뇌주(辭酒)는 술을 땅에 뿌리고 신을 부르는 의식. 궤(跪)는 꿇어 앉으라는 말이며 '헌관봉지 전우고처 북향립(獻官奉之 奠于故處 北向立)'은 "양손을 모으고 읊하는 자세에서 신위(神位) 전에 올리게 하고 북쪽을 향해 서라"는 뜻이다.

뇌주(辭酒)는 우리 조상(祖上)들이 신(神)을 먼저 섬기는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자손들이 올리는 술이지만 이 땅을 지키는 신(神)에게 먼저 올리고 다음에 마시는 겸손함으로 무위자연(無爲自然)사상을 심어준다.

이렇듯 의식마다 숨어 있는 깊은 뜻대로 제례를 진행시키는 역할은 물론 제향을 마치고 나온 참제원과 헌관 찬자, 유사들이 갖는 음복(飮福) 예를 끝내고 도포(道袍)를 벗는 순간까지 진행을 살핀다. 삼태사(三太師) 묘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

대종회(大宗會)가 주관하는 제향 행사뿐만이 아니다. 병산서원(屏山書院) 제례강좌와 한시백일장(漢詩白日場) 심사위원(審査委員), 여러 중중에서 묻는 건마다 답변도 수시로 해야 하고.

안동중친회장을 지내신 권주연(權宙衍, 82, 지역중친협의회 감사, 副會長公派)에 따르면 "안동지역 반가의

대부분이 제례의식과 족보, 유림관련 사안들은 정창 쪽친의 자문을 받는다."고 증언 했다. 특히 이 부분에 선 헌장 경험이 가장 풍부한 한학자(漢學者)라고 덧붙었다.

한시(漢詩)와 서예(書藝), 사군자(四君子)도 따를 사람이 별로 없다.

최근에 펴낸 자서전 "정재(井齋) 만필(漫筆)집엔 2009년부터 전국한시백일장에 낸 창작 한시(漢詩) '송모목은 선생도학사상崇慕牧隱先生道學學想' '영가추경永嘉秋景' 등 200여 편과 매월당梅月堂 시詩 진양殘陽' 등 35편의 글씨, 그리고 13편의 사군자四君子를 실었다.

선대 별제공別提公(諱 哲命, 忠愍公의 셋째 아들)의 아드님(諱 經) 묘감명(墓感名)과 병산서원(屏山書院)과 도산서원(陶山書院) 재유사(齋有司) 집(集)에(敎禮) 등 원시당에서 헌시했던 망(望)을 모아 실었다.

권정창 대종회(大宗會) 제례위원장(祭禮委員長)은 단종(端宗) 사화로 스스로 자진하신 단종(端宗)의 이모부이자 문종(文種)의 손위 동서(同婿) 충민공(竹林公, 諱 山海)의 17대손으로 안동시 풍산읍에서 태어났다.

안동시에서 공무원으로 출발, 사무관(事務官)으로 은퇴할 때까지 옥조근정훈장(玉條勤政勳章, 1999년 서훈)과 세례에 걸친 국무총리, 장관이 주는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는 등 청백리 공무원 이셨다.

능동재사(陵洞齋舍)와 삼태사묘를 40년 넘게 권주연 회장과 함께 출입하신 제례문화의 산증인이시기도 하다. 특히 지난 2011년에 고인이 되신 권영하(權寧下, 佐尹公派, 이의근 전 경북도지사와 보통고시 동기) 공으로부터 유학에 발을 들여 놓으셨다.

# 아들 없는 하늘 아래... 권윤달 족친

EB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눔 0700>에서는 2019년 9월 14일 (토) 오후 1시 30분 제470회 <아들 없는 하늘 아래> 편이 방송되었다. 부모보다 먼저 하늘로 간 두 아들을 가슴에 묻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권윤달(77)씨와 이종례(69)씨의 안타까운 사연이다.



23년전 1996년 3월, 집에서 일어난 가스 유출 사고로 두 아들을 갑자기 잃었다. "불의의 사고로 큰 아들이 결혼식 준비도 다 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갑자기 두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인지 아내 이종례(69세) 씨는 뇌 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자식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을 그 누가 알 수 있을까. 단 한 순간도 자식을 잊어 본 적이 없다는 부부는 떠난 두 아들의 빈자리를 매일 눈물로 채우고 있다. 그럼에도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련을 이겨내려 하고 있다. 권윤달 씨는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죽음을 다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렇게 아내를 보살핀 지 어느덧 23년. 권윤달 씨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걸까? 아내는 조금씩 스스로 걸기도 하고 건강이 호전되는 듯하더니 5개월 전, 당뇨 합병증 등 점점 악화되는 건강으로 결국 아내는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음

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코에 호스를 꽂아 영양식을 섭취하고 몸에 생긴 욕창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권윤달 씨는 아내가 곧 일어나 건강할 모습을 되찾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아직도 건강했던 아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23년간 매일 반복되는 병간호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사랑으로 아내를 보살피고 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있는 아내를 보러 가는 길에도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아픈 곳은 없었는지... 그저 아내 생각뿐이다. 비록 맑은 제대로 못 하지만 늘 뽀뽀로 마음을 표현하는 아내. 권윤달 씨에게 들도 없는 사랑스러운 아내이다. 아내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집사람이 병원에 있는 바람에 생계비도 부족하고, 병원비 낼 것이 큰 걱정이라 한숨

만 나옵니다." 사고 후 권윤달 씨는 아내를 간호하느라 제대로 된 일조차 하지 못했다. 과거에는 젊었을 때 벌어들였던 돈으로 어떻게든 버텼지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생계비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여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자신이 건강해야 아픈 아내를 잘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엘리베이터를 단 한 번도 탄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생계비와 병원비가 부족해 빌린 천만 원이 넘는 빚만 생각하면 눈앞이 까마득하지만 하다. 사랑하는 아내와 오래도록 함께 살고 싶은 권윤달 씨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부가 지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다.

전화로 문의 하고 싶으신 분은 02-526-300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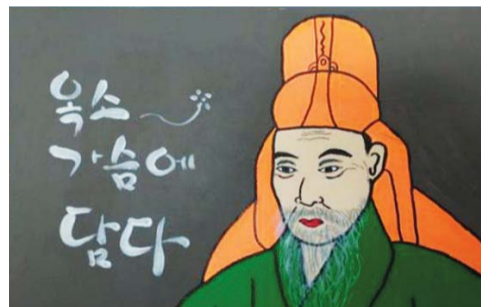
# 제천시 '옥소 권섭 문학관 건립 서명 운동' 전개

옥소 권섭(1671~1759) 선생의 탄생 348주년과 제천 예술인들의 화합을 위해 열린 제16회 옥소예술제가 8월 30일 오전 10시 문암영당에서 고유제와 (사)한국국악협회(지부장 광병숙)의 국악공연을 시작으로 이상천 제천시장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유필상 제천지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각하는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옥소 권섭 문학관 건립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예술제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과 기관 단체장들이 호응하였다.

옥소예술제는 매년 제천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옥소 권섭의 예술혼을 기리고 향토예술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는 문화행사이다. <편집국장 권행완>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제천지회가 주최한 옥소예술제는 옥소 권섭의 문학과 삶이 시민들에게 친숙히 와 닿을 수 있도록 옥소가 '내시는 곳이 그림 같은데'라고 예찬한 제천을 배경으로 가족무료사진 촬영, 옥소유작모사·사생대회, 옥소4행시쓰기 대회, 옥소유품전, 옛의림지와 제천사진전, 2회 옥소가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한편, 주최 측은 31일까지 진행되는 행사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옥소 권섭 선생의 문학과 작품 세계를 알리고 제천의 문화적 공간, 생



# 2019 始祖 太師公 秋享祭 案内



2019년도(권기 1090년)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추향제 봉행 후 평창공과 학림공 공적비 제막식을 거행할 예정이오니 100만 족친은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10시
- ♣ 장소: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

- ♣ 大堂會: 2019년 11월 15일(금) 오후 6시
- 연락처: 서울 02-2695-2483~4 / 안동 054-854-2256

2019年 10月 1日

安東權氏 大宗會 會長 權海玉